

영남본부, 관내 주민 숙원사업 해결

- 환경취약개소에 방음벽 설치 -

영남본부(본부장 이태균)는 관내 환경취약개소에 방음벽을 설치('11.12~'12.2)하여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을 해결하였다. 부산시 관내 폐법동 394-14 및 덕포동 115-7일원은 예산 등 여러가지 여건상 후 순위에 밀려 그 동안 소외된 개소에 대한 민원으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사업은 경부선 근접시공에 따른 방음벽기초 일반(현장타설) 공법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기성파일 제품을 적용 시공성과 안정성을 확보 하였으며, 연도말 발주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철도공사와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단 한건의 열차운행지장 사고 및 건설안전사고 없이 마무리 하였다.

한편 일반적인 방음벽공사와 달리 지역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입지조건이 어려운 개소임에도 공단직원이 불철주야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방음벽공사 중은 물론 공사완료 후에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협조와 격려를 받았다.

앞으로도 선로연변 정온유지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단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예정이다.

〈영남본부 김진성 기자〉



PM 전략회의로 소통 문화 '강원通' 정착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소통의 리 다짐, 강원通' 실현을 위해 사이버 해우소, 본부 Facebook, 직원들과 오아시스 등을 운영하며, 본부내 상하, 수평간 소통 확대를 통한 업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건설처(처장 석호영)는 처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부서 상호간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착안하여 건설처장 부임 이후 부터 부장급 이상 직원이 참석하는 PM 전략회의를 매주 월요일 업무시간 전에 개최하여 업무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PM전략회의는 건설 사업에 대한 현안 공유와 지난 부진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한 개선 대책 마련, 긴급 민원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며, 건설처는 앞으로도 PM 전략회의를 지속·확대 운영하여 업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물론 직원들과 소통을 위한 방안 강구 등 다양한 방면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강원본부 권의원 기자〉

주요뉴스 (3.1~3.9)

- 울산역 정차 고속철 3월 한 달간 8편 늘려(경향신문 3. 1)
- "KTx 정음역사 신축 문제 사과 촉구"(전북일보 3. 1)
- 송도역~오이도 수인선 1단계 구간 6월 개통(서울경제 3. 2)
- 홍성역 만성주차난 해소 '급물살' (중도일보, 충청일보, 대전일보 3. 2)
- 신공항 10조=고교 무상교육5년... 잘못된 토목은 재정 재앙 초래(한국일보 3. 2)
- 군산 공설·역전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추진(전북일보 3. 2)
- 차세대 고속철 '해무' 이달 공개(한국경제 3. 3)
- 철도공단 작년 기관운영비 260억 절감(충청투데이 3. 5)
- 도롱뇽 살리자던 사람들, 탈북자엔 왜 침묵하나(조선일보 3. 5)
- 충주대·철도대 통합 한국교통대 새 출범(경향신문 3. 5)
- "선거의 해, 숙원사업 풀자"(동아일보 3. 5)
- 국민복지 위한 철도 경쟁체제(국민일보 3. 6)
- 철도운영 제2사업자선정 무조건 반대할 일인가(한국일보 3. 6)
- "돈이 없어서..." 변명으로 일관(중도일보 3. 6)
- 오늘 한국철도시설공단 녹색철도대학원 입학식(충청투데이 3. 6)
-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개교(대전일보, 충청투데이 3. 6)
-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조기착공·개통 바라(경인신문 3. 6)
- 아르헨티나, 또다시 열차사고.. 10명 부상(아시아경제 3. 6)
- 철도공단 설계기준 개선 예산절감 효과 '톡톡'(충청투데이 3. 7)
- 여수엑스포 찾아가는 길 쉬워져(동아일보 3. 7)
- 2012 공기업 경영혁신 현황을 가다 - 한국철도시설공단(문화일보 3. 7)
- 철도유류부지 민간제안 방식 개발 (서울신문, 파이낸셜뉴스,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3. 8)
- 인천공항철도 제2터미널까지 연장 (세계일보, 국민일보, 인천일보, 경인일보 3. 8)
- 호남고속철 광주~목포 노선 어디로 (전남일보 3. 8)
- 수인선 역이름 변경 싸고 주민들 '육신각산' (서울신문 3. 8)
- 국토부 산하 주요 공기업 올해 공사 발주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3. 8)
- 원주~강릉간 철도, '동계올림픽 고속철'로 부르자 (조선일보 3. 9)
- 울산~양산 경전철 결국 무산될듯 (동아일보 3. 9)
- 제2서해안고속도로 등 대형사업 제동 (매일경제, 서울경제 3. 9)
- "남부내륙철도 조기건설 해야" 道·의회, 정부에 건의문 제출 (국제신문 3. 9)
- "KTx정음역사 신축해야" (전북일보 3. 9)
- 호남고속철 '무안공항 경유'로 결론을 (전남일보 3. 9)
- 군산 국가철도망 구축사업 '가시화' (전북일보 3. 9)
- "춘천~속초고속鐵 정책적 판단 결정" (강원일보 3. 9)
- "민간 KTX, 기대이상 매출 일부 국고환수"(서울경제 3. 10)
- 불만 쏟아진 민영 KTX 사업설명회(매일경제 3. 10)
- '수서발 KTX' 최소 자본 1600억(한겨레신문 3. 10)

기술본부 『KR 키다리 아저씨』 배식 봉사단 발족

- 사회적 책임과 나눔문화 확산 지속 전개 -



기술본부는 '12년도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8일 『KR 키다리 아저씨』급식 봉사단을 발족하였다.

『KR 키다리 아저씨』는 기술본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애칭으로써 지역사회에 희망의 빛을 전파하기 위한 조직으로 전직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순수 봉사단체이며,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구 노인종합복지관과 함께 금년도에 추진할 주요 활동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대한 이동지원 및 배식봉사 등 작지만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활동이다.

이 봉사단의 발족으로 지금까지 추진해오던 사회공헌 활동을 더 한층 발전시켜 1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활동으로 전개하고 국민의 공기업으로써 사회적 책임과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한다.

기술본부는 금년 활동과 더불어 'KR 소년단 희망의 불빛 기구기' 등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으로 공단의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기술본부 장동일 기자〉

강원본부! 원주시민과 함께 달리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다!

- 원주 수도권 전철 조기 완공 기원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참가 -

강원본부(본부장 김재규)는 지난 1일 지역본부 직원 뿐만 아니라 원주민인 협력사 직원 등 50여명이 3.1절을 맞이하여 지역 언론 강원일보가 주최하는 원주~수도권 전철 조기 완공 기원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가하여 지역사회 현안 사항에 대하여 시민들과 10km를 함께 뛰면서 소통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달리기 대회는 지역사회 숙원 사업인 수도권 전철 여주-원주간 조기 완공을 염원하는 대회로써 1,000여명의 원주시민과 더불어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여러 분야에서 참여하여 열기를 더하였다.

건강도 챙기고 지역사회와 함께 한 이번 달리기 대회로 공단의 이미지 제고와 공단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는 두마리 토끼를 잡은 보람된 시간이었다.

〈강원본부 오재훈 기자〉



삼성SDS 6개월간 관급 입찰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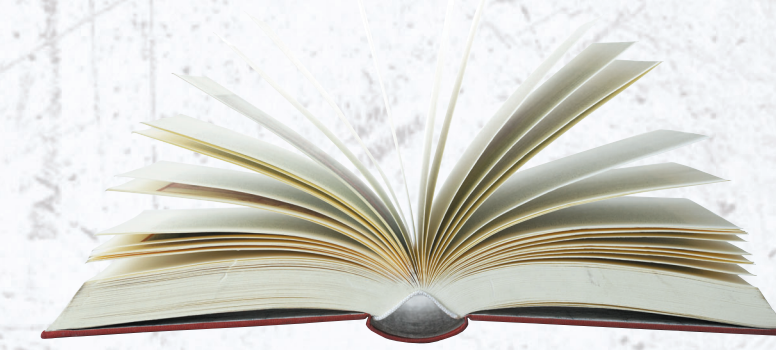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선로전환기 입찰시 허위실적 제출 적발 -

공단은 허위서류를 제출해 부정한 방법으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납품 계약한 삼성SDS(주)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난 7일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서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로 삼성SDS(주)는 3월 15일부터 9월 14일 까지 6개월간 공단 및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삼성SDS(주)는 2008년 11월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 선로전환기 구매계약 입찰에서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은 하이드로스타 선로전환기가 마치 스페인 고속철도 콘크리트케도 분기기에 적용 한 실적이 있는 것처럼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하여 납품계약을 체결해 철도시설공단의 공정한 입찰업무를 방해하였고, 결과적으로 당초 계약 조건과 달리 하자있는 선로전환기 114억원 상당을 납품해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개통 이후 현재 까지 무려 702회의 장애가 발생케 하였다.

공단은 이와 관련하여 삼성SDS(주)로 하여금 장애원인을 제거해 하자치유 및 보증을 하게 하는 한편, 허위실적 서류를 제출한 삼성SDS(주)에 대해 지난해 11. 8일 형사고소 하였고, 아울러 경부고속철도 2단계구간 선로전환기와 분기기 공사와 관련한 삼성SDS(주) 등 총 19개 업체에 대해 40여억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제반 법적 조치를 취하였다.



경조사

- 강원본부 시설운영처 김용배처장 모친상 - 발인 : 2012년 3월 13일(화)
- 강원본부 시설운영처 신동희사원 결혼 - 일시 : 2012년 3월 10일(토)
- 시설장비사무소 사업지원부 정옥주차장 부친상 - 발인 : 2012년 3월 12일(월)
- 시설사업본부 용지처 심훈민과장 결혼 - 일시 : 2012년 3월 10일(토)
- 시설사업본부 중국지사 고정모차장 병무상 - 발인 : 2012년 3월 8일(목)
- 녹색철도연구원 정책연구소 오주환부장 부친상 - 발인 : 2012년 3월 3일(토)